

12-1-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이사야 25:8-9

말씀 제목: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심으로써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사 25:8)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리라.”(사 25:9)

그렇습니다!

사망을 삼키심으로 승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죄와 그로 인해 사망과 저주로 가득찬 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에 가득찬 죄와 저주를 자신의 몸에 하나도 남김 없이 전가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와 저주를 제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을 삼키시고 사망을 이기시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연이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6)

그러므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 영접함으로써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롭음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롬 6:3-11)

사도 바울은 죄에게는 죽은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열매들이 되셨으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전 15:16-26)

사도 바울은 우리가 휴거될 때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흠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전 15:49-53)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증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삼키심으로써 승리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앎이니라.”(고전 15:54-58)

아멘! 할렐루야!